

국어 영역

▣ 화법 / 작문

1. 매체 활용 양상 파악

정답 ②

발표자는 2문단에서 동물들이 동물 축제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와, 각각의 강도에 해당하는 축제 프로그램의 수가 정리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대다수의 동물 축제에서 동물들에게 강도 5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① 지도를 활용하여 동물 축제의 분포와 유형을 보여 주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동물 축제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대다수의 동물 축제가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1차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인터넷으로 검색한 화면을 활용하여 산천어의 서식지를 소개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 지역의 생태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동영상 활용하여 산천어가 겪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희생당한 산천어의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동물 친화성 종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축제들을 언급할 때는 슬라이드를 활용하지 않았다. 또한 동물 친화성 종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의 환경 정책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청자 1의 경우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쉬웠어.”라고 하며 발표자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청자 3의 발화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① 청자 1은 “~라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라고 말하며 발표를 들은 이후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발표자는 중심 제재인 ‘동물 축제’를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청자 2는 ‘동물 축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청자 3은 자신이 직접 산천어 축제에 참여했을 때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언급하며 발표자의 발언에 공감하고 있다.
- ⑤ 청자 2는 산천어 축제에 의한 실제 경제 효과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청자 3은 야생 동물의 특성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3. 토론 참여자의 공통된 생각 추론

정답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휴일에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반대 1’ 역시 입론에서 휴일에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휴일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찬성 측은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면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고 수업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면 공부를 하기보다는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학교를 찾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③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휴일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체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 ④ 반대 측은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4.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②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휴일에 도서관과 자습실을 개방하는 것이 수업 분위기의 개선과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찬성 측은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수업 분위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도서관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20분이나 가야 했다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면 휴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선생님과 관리 요원에게 지급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 ④ ‘찬성 2’는 반대 신문에서 휴일에도 안전지킴이 선생님이 계시다는 점을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듣고 반대 측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반론에서 도서관과 자습실을 개방하고 있는 평일 저녁의 상황을 제시하며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이해

정답 ④

‘찬성 1’의 반론에서는 휴일 학교 개방과 관련해선 반대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대 측이 제시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된 유사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상대방이 주장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가능한 실태에 대한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 ① ‘찬성 1’은 반대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휴일에 학교 개방을 하면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를 찾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반론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면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위해 찾을 것이라는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휴일에 학교를 개방했을 때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위해 방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하며 상대방이 제시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찬성 1’은 휴일에 학교를 개방한 인근 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6.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

정답 ④

(나)를 쓴 학생이 토론에 참여한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한 것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토론회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자료 수집에 대한 비판과는 관련이 없다.

- ① 1문단의 “절차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심도 있게 오갔으며 참여자들 모두 진지하게 토론회에 임하여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다.”에서 토론회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② 1문단의 “해당 토론이 학교의 올바른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에서 글을 쓴 동기를 밝히고 있다.
- ③ 4문단에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로 어떤 곳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해 조사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조사 결과 작은

도서관과 학습 지원 센터가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⑤ 5문단에서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토론회의 또 다른 수확이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7. 토론 평가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나)를 쓴 학생은 평일 저녁의 경우를 들어 휴일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대 측의 반론에 대해 평일 저녁과 휴일의 상황이 같을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뿐더러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필자가 반대 측의 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나)를 쓴 학생은 찬성 측이 입론에서 주장한 휴일에 학교 개방을 원하는 학생이 많다는 내용이 학생회에서 조사한 설문 조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찬성 측의 입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② (나)를 쓴 학생은 학생들이 휴일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 때문에 토론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의 입론에서 마땅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반대 측의 입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③ (나)를 쓴 학생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반대 측의 입론 단계의 특성에 걸맞게 반대 측이 찬성 측의 주장대로 휴일에 학교를 개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반박한 것을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 ④ (나)를 쓴 학생은 찬성 측이 휴일에 학교에 근무하는 안전지킴이 선생님의 역할이 화재나 도난 사고 방지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론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8. 작문 계획의 반영 사항 파악

정답 ①

(가)의 1문단에서 최근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치 참여를 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는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ㄱ)을 언급하고 있고 2~4문단에서는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이유(ㄴ)를 제시하고 있다.

- ㄷ.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가)에 제시되지 않았다.
- ㄹ.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반론은 (나)에 제시되어 있으며, (가)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9. 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 ③

(나)에서 심리학자 에릭슨의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이는 청소년기에 편향된 정보를 접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언급과 관련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그의 견해가 아니다.

- ① (나)의 첫 문단에는 학교 신문에 실린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반응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글을 반박한다는 글의 목적이 나타나 있다.
- ② (나)의 마지막 문단에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반박을 요약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나)의 2문단에는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 ⑤ (나)의 4문단에는 정치가 18세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의 사례로 대통령 선거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10.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③

[A]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이 선거권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펼치거나, 헌법 재판소의 판례와 배치되는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선거권 부여에 대해 대부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를 제시하여 [A]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① 현행법에서는 성년의 나이를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 연령 또한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것이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학생들이 편향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은 [A]에 제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을 위한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A]에 제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정치가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A]에 제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법

11. 형태소 분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보았다’의 ‘-았-’과 ‘먹었다’의 ‘-었-’은 모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나 음성 이냐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되는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았-’과 ‘-었-’이 형태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은 ‘나’, ‘는’, ‘산’, ‘으로’, ‘가-’, ‘-서’, ‘별’, ‘을’, ‘보-’, ‘-았-’, ‘-다’라는 11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② ㉡의 자립 형태소는 ‘형’, ‘나’, ‘함께’, ‘바다’, ‘물’, ‘고기’ 6개이며, 의존 형태소는 ‘은’, ‘와’, ‘로’, ‘가-’, ‘-서’, ‘를’, ‘먹-’, ‘-었-’, ‘-다’ 9개이다.
- ③ ㉢의 실질 형태소는 ‘나’, ‘산’, ‘가-’, ‘별’, ‘보-’ 5개이며, ㉡의 실질 형태소는 ‘형’, ‘나’, ‘함께’, ‘바다’, ‘가-’, ‘물’, ‘고기’, ‘먹-’ 8개이다.
- ④ ㉠의 ‘으로’와 ㉡의 ‘로’는 모두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이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는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12. 중세 국어의 이형태 파악

정답 ④

(다)의 ‘버리’는 ‘별’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후, 이어 적기 표기에 따라 ‘버리’로 표기된 것이며, (라)의 ‘賈餼’ 역시 ‘賈餼’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버리’와 ‘賈餼’는 모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경우이다.

- ① (가)의 ‘내’와 (마)의 ‘父母’에 사용된 주격 조사는 공통적으로 ‘ㅣ’이다. 이는 앞말이 ‘ㅣ’나 반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 ② (가)의 ‘이룰’과 (나)의 ‘舍利’는 모두 앞말의 모음이 ‘ㅣ’로 끝났기 때문에 양성에 붙는 목적격 조사인 ‘ㄹ’이 사용되었다.
- ③ (나)의 ‘부텃’은 앞말이 높임의 유정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ㅅ’이 사용되었고, (마)의 ‘아들익’은 앞말이 평칭의 유정 명사이고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익’이 사용되었다.
- ⑤ (라)의 ‘눈므를’은 ‘눈믈’과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후, 이어 적기 표기에 따라 ‘눈므를’로 표기된 것인데, 목적격 조사 ‘을’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앞말의 모음이 음성일 때 사용된다. (마)의 ‘마를’은 ‘믈’과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후, 이어 적기 표기에 따라 ‘므를’로 표기된 것으로, 목적격 조사 ‘을’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앞말의 모음이 양성일 때 사용된다.

13.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 ④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총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으며,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경음화’가 일어나 총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① ㉠에서는 ‘ㄱ늘-→ㄱ느’이 되는 과정에서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되었지만, ㉡에서는 ‘ㅅ알-→ㅅ알’이 되는 과정에서 탈락과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6개를 유지하였다.
- ② ㉠에서는 ‘ㄱ늘-→ㄱ느’ (탈락)→‘ㄱ느’ (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 ㉡에서는 ‘활이다-→활치다’ (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과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이다.
- ③ ㉡에서는 ‘ㅅ알-→ㅅ알’ (탈락)→‘ㅅ알’ (첨가)→‘상닐’ (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 ㉠에서는 ‘활이다-→활치다’ (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과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이다.
- ⑤ ㉡에서는 ‘활이다-→활치다’ (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 ㉠에서는 ‘웃맵사-→웃맵씨’ (교체 2회)→‘웃맵씨’ (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은 탈락, 축약, 첨가가 있는데 ㉡과 ㉠에서는 모두 교체만 일어났다.

14. 문장의 짜임 이해

정답 ④

ㄱ의 안긴문장 ‘내가 네게 사과할게’는 보조사가 아니라 격 조사 ‘라고’가 결합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안은문장의 주어인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 ① ㄱ의 안긴문장 ‘숨씨가 훌륭하다’는 특별한 표지 없이 안긴문장이 실현된 서술절이다. 안은문장의 주어 ‘그녀는’과 안긴문장의 주어 ‘숨씨가’는 서로 다르다.
- ② ㄴ의 안긴문장 ‘내가 먹을’은 관형사형 어미 ‘-으’가 붙어 실현된 관형절이다. 안긴문장에서는 주성분인 목적어 ‘간식’이 생략되어 있다.
- ③ ㄷ의 안긴문장 ‘그가 정직함’은 명사형 어미 ‘-으’가 붙어 실현된 명사절이다.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ㄹ의 안긴문장 ‘아이들이 지나가도록’은 부사형 어미 ‘-도록’이 붙어 실현된 부사절이다. ㄹ은 안긴문장을 생략해도 문장의 성립이 가능하다.

15. 담화 표현의 이해

정답 ④

㉡의 ‘우리는’은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쓰였다. 해당 의미로 쓰일 때는 ‘우리 엄마’, ‘우리 학교’처럼 대부분 명사 앞에 위치한다.

- ① ㉠의 ‘여기’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 ② ㉡의 ‘그저’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그저’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해당 담화의 앞부분에서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않았으므로 지시 표현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아무’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대명사이다.
- ⑤ ㉤의 ‘언제’는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독서 / 문학

[16~18] (현대 소설)

박상우, 「내 마음의 옥탑방」

이 작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향성의 상실을 다루고 있다. 영업 사원인 ‘나(민수)’는 자신의 삶에 두려움을 느끼는 주변인이다. 나는 판매처가 있는 백화점에 갔다가 안내 직원으로서 꿈을 꾸듯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주희)’를 보게 된다. 이후 나는 그녀의 초대로 그녀가 살고 있는 옥탑방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의 꿈이 옥탑방을 벗어나 속물스러운 세계인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알게 된다. 작가는 지상의 세계와 대조되는 옥탑방이란 공간을 통해서 주체적 의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소망과 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6.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⑤

‘그녀’는 ‘인간들의 자만심을 되새김질하고 있’다는 ‘나’의 견해는 ‘신들에게나 어울리는’ 소리라고 하면서, 자신은 ‘미물스럽고 속물스러운 세계’에 안주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가 ‘나’의 견해에 대해 사람들이 정신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며 수긍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나’는 ‘그녀’의 초대로 ‘난생 처음 방문하게 된 옥탑방’을 보며 ‘그녀’가 ‘웅장한 옥탑방에서’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녀’의 옥탑방을 방문하기 전까지 ‘그녀’가 ‘옥탑방’에 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다.
- ② ‘나’는 ‘옥탑방’의 옥상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지상에서 느꼈던 ‘공포감’과는 다른 ‘미물스러움’을 되새기고 있다. 즉 ‘나’는 ‘옥탑방’의 옥상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최근의 삶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 ③ ‘나’는 ‘그녀’와 맞은편 벽면에 기대어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행위에서 ‘그녀’와 교감을 느끼지만 잠시만 밖으로 나가 있어 달라는 ‘그녀’의 말에 교감에 대한 확신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 ④ ‘그녀’는 자신 때문에 ‘나’가 ‘상처 받게 될까 봐’ 자신의 ‘옥탑방’을 ‘나’에게 보여 준다고 하며, ‘나’가 흠쳐보던 ‘그 여자가 아직도’ ‘그녀’라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묻고 있다. 즉 ‘그녀’는 ‘나’가 자신의 ‘옥탑방’을 본 후 ‘그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17.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①

㉡는 지상의 세계에 안주하며 물질적이고 속물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실현하지 못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는 회사와 형제 집에 올라가는 일을 두려워하여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다.

- ② ㉠는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로 볼 수 없다.
- ③ ㉣는 개인적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볼 수 없다.
- ④ ㉤는 신을 믿어 본 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의 섭리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종교적 세계관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없다.
- ⑤ ㉥는 물질적이고 속물적인 지상의 도시적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도회적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는 태도를 지닌 존재로 볼 수 없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 ‘그녀’는 ‘지상의 주민이 되어 미물스럽고 속물스러운 세계에 안주’하기 위해 ‘꿈을 꾸듯’ 현실을 견디고 있는 인물로, 여기서 ‘미물스럽고 속물스러운 세계’는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화점’이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현실을 견디’는 ‘그녀’의 폐쇄된 공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이 작품에서 ‘옥탑방’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삼층 양옥의 옥상에 자리잡은 ‘십오 평 정도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이 작품에서 ‘지상의 밤풍경’은 ‘옥탑방’의 옥상에서 바라보는 ‘나’의 인식에 의해 ‘가련한 고난의 세계’라는 심리적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이 작품에서 ‘백화점’은 ‘나’의 인식에 의해 ‘젖과 꿀이 흐르는 현대판 가나안’이라고 여겨지며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이 작품에서 ‘옥탑방’은 ‘그녀’의 ‘사악한 꿈이 자라는 비밀스러운 온상’으로 비유되며, 작중 인물인 ‘그녀’의 심리를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제시되고 있다.

[19~23] (사회)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글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시점의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 시점의 재화 묶음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구한 후 기준 연도의 소요 비용과 측정 연도의 소요 비용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

1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②

- 제시문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개념과 소비자 물가 지수와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경제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① 2문단을 통해 소비자 물가 지수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을 통해 기준 연도의 소요 비용과 산출하고자 하는 측정 연도의 소요 비용을 구한 다음, 측정 연도의 소요 비용을 기준 연도의 소요 비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주면 측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4문단을 통해 물가 상승률은 측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비교 시점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뺀 값을 비교 시점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2문단과 3문단을 통해 재화 묶음에 들어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정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헤아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2문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 달 통계청에서 발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 이해

정답 ⑤

- 3문단에서 기준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상 100이기 때문에, 측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에는 기준 연도에 비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전년도에 비해 재화 묶음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보다 커진다.
- ① 3문단을 통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격 변동의 효과와 수량 변화의 효과를 분리하여 가격 변동의 효과에만 주목하기 위해 재화 묶음의 수량적 측면을 고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을 통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기준 연도는 어느 해로 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재화 묶음에는 식품이라는 일반적 항목 대신 유제품과 같이 더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기도 하며, 우유와 같이 개별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지우개’, ‘망치’와 같은 개별 품목의 재화 역시 재화 묶음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460개 항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수천 개 항목의 재화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한다고 하였으므로, 나라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되는 재화 묶음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1. 핵심 정보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③

4문단에서 동일한 기준 연도를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특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한 후, 현재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특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값에 특정 연도의 금액을 곱하면 특정 연도의 금액 가치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1931년의 베이브 루스의 연봉 가치는 2012년 기준으로 약 120만 7895달러(229,5/15.2*80000)이며, 하버드 후버 대통령의 연봉은 약 113만 2401달러(229,5/15.2*75000)이다. 따라서 1931년 베이브 루스의 연봉의 2012년 가치는 뉴욕 양키스 선수 연봉의 중간값보다 작으며, 하버드 후버 대통령 연봉의 2012년 가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보다 크다.

22.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 ⑤

- 2016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43이며, 2016년을 기준으로 한 2017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0이므로, 2016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 2017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크다.
- ① 물가 상승률은 측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비교 시점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뺀 값을 비교 시점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2015년의 소요 비용은 140,000원이며, 2016년의 소요 비용은 200,000원이므로, 2016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43이다. 따라서 2016년의 물가 상승률은 43이므로, 50보다 작다.
 - ② 2015년의 소요 비용은 140,000원이며, 2017년의 소요 비용은 260,000원이다. 2017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7년의 소요 비용을 2015년의 소요 비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주면 되므로, 2017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86이다.
 - ③ 2015년과 2016년의 소요 비용은 각 시점의 재화 묶음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가격을 의미하므로, 각각 140,000원과 200,000원에 해당한다.
 - ④ 2015년의 물가 지수는 100이며, 2015년을 기준으로 한 2017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86이므로, 2015년의 10,000원의 가치는 2017년에 18,600원이다. 따라서 2015년의 10,000원의 가치는 2017년의 10,000원의 가치보다 크다.

23.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④

㉠의 ‘달라지다’는 ‘변하여 전과는 다르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바뀌어 달라지게 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변동(變動)되다’로 바꿀 수 있다. ‘변모(變貌)하다’는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

뀌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① ㉠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수령(受領)하다’로 바뀌 쓸 수 있다.
- ② ㉠의 ‘들어가다’는 ‘일정한 범위나 기준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포함(包含)되다’로 바뀌 쓸 수 있다.
- ③ ㉠의 ‘헤아리다’는 ‘집착하여 가능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고려(考慮)하다’로 바뀌 쓸 수 있다.
- ⑤ ㉠의 ‘손쉽다’는 ‘어떤 것을 다루거나 어떤 일을 하기가 편 쉽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용이(容易)하다’로 바뀌 쓸 수 있다.

[24~27] (예술)

최행준, 「세잔의 정물화와 불일치」

이 글은 세잔의 예술관을 다루고 있다. 세잔 이전의 회화는 대부분 대상의 존재 권리와 주체의 존재 권리 사이에서 대상의 측면을 중심으로 실체를 환원하려 하였다. 그런데 세잔은 이를 문제시켰다. 특히 대상의 색채와 명암의 불일치, 그리고 형태와 구조들의 불일치를 비판하고 주체와 대상 양자의 존재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려고 하였다.

24.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③

- 대립적 요소들이 한 작품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회화는 곧 세잔의 예술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메를로퐁티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세잔의 작품 세계를 자신의 철학과 동일시할 정도로 그의 회화 양식에 동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잘못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 ① 2문단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 비판하였는데”라는 구절을 통해 인상주의 화가들이 전통적인 회화에서 색채를 표현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과 5문단에서, 세잔은 주체와 대상 양자의 존재 권리를 모두 균형 있게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의 “특히 가까이 있는 개체를 ~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문장을 통해 멀리 있는 개체를 볼 때는 두 눈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⑤ 1문단의 “전통적인 회화는 ~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라는 문장을 통해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주체와 대상 간의 통일 과정에서 대상의 측면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5. 구체적 사례 판단

정답 ①

- ㉠은 곧 주체와 대상 양자의 균형 있는 조화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상의 고유 형상을 인식한 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대상의 형상과 이를 인식한 주체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위해 원근법을 무시하고 그랬다는 것은 주체와 대상 양자의 존재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 ② 종교적 가치를 작품 속에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은 곧 주체의 존재 권리를 대상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 ③ 내재된 욕망을 강조했다는 것은 곧 주체의 존재 권리를 대상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 ④ 물체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명도를 조작한 것은 곧 대상의 존재 권리를 주체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⑤ 정신적 차원의 순수함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은 곧 주체의 존재 권리를 대상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26.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⑤

실제로 인식한 정보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 대상을 그리고자 했던 세잔의 예술관과는 동떨어진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4문단의 두 눈에서 처리하는 시각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실제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
- ② 3문단의 “우리의 눈은 어떤 대상을 볼 때 모든 부분에 똑같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
- ③ 4문단의 “이는 인간의 시각이 ~ 대상을 배경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현상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
- ④ 5문단의 “대상을 사실처럼 묘사하기 위해 ~ 기존의 회화 양식에 반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

27. 어휘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로 볼 수 있다. ④ 역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시간적으로 오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어떤 수치에 근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8~32] (고전 시가+ 현대 시)

(가) 작자 미상, 「초부가」
이 작품의 화자는 고대광실에서 태어나 만석록을 누리는 남들과 달리 남의 집 머슴으로 태어나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뭇짐을 져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화자는 처자식은 물론 재산도 없는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팔자소관, 즉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운명으로 여기며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신경림, 「농무」
이 작품은 산업화 시기에 농민으로서 살아가는 애환과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농민의 애달픈 삶과 그에 대한 울분이 역설적으로 춤을 통한 신명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다) 「노동을 소재로 한 서정 문학」
고전 시가로부터 현대 시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노동을 소재로 한 서정 문학을 다룬 평론 글이다. 「초부가」와 「농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28.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는 “치마 찢른 계집 있나 / 다박머리 자식 있나 / 광 넓은 논이 있나 / 사래 긴 밭이 있나” 등에서, (나)는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한탄스러운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가)의 “청천에 저 기럭아 / 너도 또한 입을 잃고 / 입 찾아서 가는 건가”에서 ‘기럭기’라는 자연물에 화자의 애상적 정감이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나)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의 첫 부분인 “나무하러 가자 / 이히후후 에헤”와 끝 부분인 “자 가자 이히후후”에서 수미쌍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는 이러한 시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해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나)의 “어떤 녀석은 / 껍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등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적 이미지를 강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의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동적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 작품의 이해 정답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어떤 사람’의 팔자를 언급하며 그들의 ‘고대광실’과 ‘만석록’을 부러워하고 있다.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의 경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①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 나 날 적에 남도 나고”에서 화자 자신과 남이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이 태어났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기구하게 살아가는 ‘이놈 팔자’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사람 팔자’의 모습을 대조하며 인간의 삶이 타고난 운명에 따라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힘든 삶에 죽자고 생각해 보니 아직 젊은 청춘이 아깝고, 살고자 하니 고단한 삶을 이어가기가 두렵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로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 어떤 놈이 밥 한술 줄 놈이 있나”에서 화자가 하루라도 나무를 해가지 못하면 끼니를 이어갈 방도가 없는 처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처지에 대한 탄식이 함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30.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나) 14행의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는 화자와 ‘어편네’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고된 처지를 대변하는 구절로 볼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 화자는 “농사 따위야 아예 어편네에게나 맡겨 두고”와 같이 체념적 반응을 보이며 농무를 추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구경꾼’은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행에서 ‘구경꾼이 돌아가고’ 운동장이 텅 빈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때 벌여졌던 공연이 끝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② 1~4행에 ‘우리가’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막이 내리게 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7~10행에 화자를 포함한 무리가 팽과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나섰을 때 악을 쓰는 조무래기들과 철없이 킬킬대는 처녀 애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껍정이’와 ‘서림이’는 시적 상황 바깥의 인물로, 다른 소설 작품의 작중 인물이다. 11~12행에서는 이러한 시적 상황 바깥의 인물 성격을 빌려 ‘어떤 녀석’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 특징, 예를 들어 울부짖는대거나 해해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②

(나) 4~6행의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답답하고 고달픈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에서 화자가 ‘소꿉집’이라는 공간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나누며 고달픈 인생을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화자는 구경꾼이 모두 떠난 뒤 텅 비어 있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뿐, 이 과정에서 바로 공연을 다시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무리가 팽과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나선 장면에서 ‘보름달이 밝아’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뒤 내용이 삶의 고달픈 애환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를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운 배경에 도취되어 있는 장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화자는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으로 이동한 장면에서 다리를 들거나 고갯짓을 하며 신명에 찬 찬사를 보이고 있다. 이때 쇠전에서 장거리를 지나 치면서 겪은 갈등 상황에 대한 회상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냉소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화자가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으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2.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이해 정답 ④

작품의 첫 장면에 나타나 있는 징이 울리는 장면은 막이 내린 상황과 함께 단순히 공연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품의 마지막 대목에 나타나는 화자의 역설적 신명을 암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다)에서 나무꾼 노래는 힘찬 어조로 사설을 시작하여 아침에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신선한 기분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 ② ‘남의 집도 못 면하고’는 넉넉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의미하므로, (다)에서 언급한 구슬픈 어조의 신세타령이 나타나는 사설의 일부로 볼 수 있다.
- ③ ‘치마 찢른 계집 있나’는 사랑하는 연인이 없는 화자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대목으로, 남녀 간 연분에 대한 염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결국 비룻값, 즉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으로 산출물을 팔아야 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3~38] (기술)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이 글은 드론의 비행 원리와 드론의 비행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인 PID 제어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를 통칭하는 드론은 고정익기와 회전익기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회전익기에는 쿼터로터가 있다. 쿼터로터는 회전 날개인 로터의 속도를 조절하여 상하, 좌우, 전후, 회전 이동을 한다. 한편, 드론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PID 제어기는 최종적인 목표인 설정값에 시스템의 결핍값이 도달할 수 있도록 비례항(P), 적분항(D), 미분항(I)을 사용하여 결핍값을 제어한다.

33.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⑤

PID 제어기에서 적분항은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비례항은 정상 상태 오차가 남는 한계가 있지만 그 자체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설정값과

결괏값의 오차를 줄이므로 적분항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설정값과 결괏값의 오차가 점점 커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양력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생긴다. 따라서 고정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날개 아래쪽의 압력이 날개 위쪽의 압력보다 크게 되고, 양력이 발생하면서 고정익기가 뜨게 된다.

34. 대상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 [정답] ①

①과 ④는 모두 로터가 회전할 때 로터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회전하려는 힘인 토크가 발생한다.

② ④는 ①과 달리 동체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테일 로터를 달고 있다.

③ ①은 로터의 속도를 증속하거나 감속하여 상하, 전후, 좌우, 회전 이동을 하고, ④는 테일 로터의 각도를 조절하여 이동 방향을 바꾼다.

④ ①은 전진 방향의 뒤쪽 두 로터만을 증속하여, ④는 메인 로터의 각도를 조절하여 기체를 기울이고 추력을 발생시켜 전진 비행을 한다.

⑤ ①과 ④는 모두 회전하는 날개인 로터에서 양력을 발생시켜 기체를 상승시킨다.

35.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④

철수는 드론을 왼쪽, 하강, 전진 이동시키기 위해 로터 D의 속도를 증속, 감속, 증속의 순서로 제어하였다.

① 로터 A의 속도는 유지, 감속, 유지의 순서로 제어되었다.

② 로터 B의 속도는 증속, 감속, 유지의 순서로 제어되었다.

③ 로터 C의 속도는 유지, 감속, 증속의 순서로 제어되었다.

⑤ 로터 B와 C는 하강할 때만 동일하게 감속으로 제어되었다.

36. 세부 내용의 추론 [정답] ②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대각선의 두 로터만을 가속하게 되면 동체에 가해지는 토크의 회전력이 증가해 토크의 회전 방향, 즉 가속된 로터들의 반대 방향으로 동체가 회전하게 된다.

① 인접한 두 로터를 가속했을 때 동체는 가속된 로터들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③ 대각선의 두 로터만을 가속하게 되면 동체는 토크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④ 인접한 두 로터를 가속했을 때 가속된 로터들의 회전력과 동체의 토크 회전력이 상쇄된다.

⑤ 대각선 방향에 있는 로터들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한쪽 대각선의 로터들만 가속하게 되면 인접한 로터들보다 회전력이 커진다.

37. 핵심 개념의 이해 [정답] ③

③는 누적된 오차를 활용하여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애도록 제어하고, ⑥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결괏값의 변화로 인한 오차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갑작스러운 결괏값의 변화를 제어한다.

① PID 제어기는 비례항, 적분항, 미분항을 모두 사용하여 드론을 제어하는데, 이때 오차의 변화율이 크지 않다면 미분항은 제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③는 정상 상태 오차가 제거되도록 결괏값을 제어하고 ⑥는 급격한 오차의 변화를 제어한다.

④ ③는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여 ⑥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⑥는 외부 영향에 따른 갑작스

러운 시스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⑤ ③는 비례항으로 제어되지 않는 결괏값을 제어한다.

38. 자료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㉑까지는 오버슈트의 최댓값에 도달하는 시간인 피크 시간으로, 해당 지점에서는 결괏값이 설정값을 초과한 경우의 최대 오차가 나타난다. 하지만 결괏값과 설정값의 오차는 설정값이 결괏값보다 큰 경우에도 나타나므로 설정값과 결괏값의 오차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결괏값이 가장 작은 0인 시작 지점이 된다.

① ㉑는 결괏값이 최초로 설정값에 도달한 지점으로 ㉒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상승 시간이다.

이는 비례 상수의 크기를 키우면 짧아질 수 있다.

③ ㉒부터 ㉑까지는 결괏값이 설정값보다 큰 오버슈트가 일어난 지점이다. 그래프상에서 ㉑ 이후로는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정착 시간은 오차가 설정값의 5% 이내로 들어오는 시간이므로 ㉑부터 ㉒까지가 정착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 구간의 결괏값은 0.95 이상이 된다.

⑤ ㉑부터는 결괏값이 설정값에 일치하고 있어 정상 상태 오차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41] (시나리오)

이창동,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를 알리기 위해 근로 기준법 사수를 외치며 분신 자살한 22세의 청년 재단사 전태일의 삶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이다. 당시의 열악했던 노동 환경과 노동계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39. 인물들의 심리 이해 [정답] ②

임 국장은 기사를 기다리다가 태일을 기자로 알고 환대한다. 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라고 밝히자 화를 내며 내쫓는다는 점에서 태일이 약속도 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일에 불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태일의 신분에 불쾌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0. 소재의 특성 이해 [정답] ③

㉑는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임 국장이 기자들을 기다렸던 이유와 관련된다. 태일은 국정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이를 기회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① 임 국장은 태일에 대해 매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자개로 만든 명패는 이러한 권위 의식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1. 영상화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㉑은 사장 1의 갑작스러운 호의에도 불구하고 태일과 개념이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㉑ 이후의 단호한 태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사장 1의 제안에 당황해서 어떻게 행동할 줄 모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① 김 양이 태일을 임 국장과 만나게 하는 것을 보면 ㉑에 제시된 태일의 모습은 노동을 하던 평상시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

② ㉑에서 임 국장은 태일을 자신이 기다리는 기자라고 착각해서 반색하며 반가워하고 있다.

③ ㉑은 김 양이 임 국장의 말을 들은 뒤에 태일을 향해 대사와 시선을 옮기게 된다.

④ ㉑의 내용을 제시할 때는 관객들에게 신문지의 지면에 있는 글자들을 보여 주기 위해 클로즈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2~45] (고전 소설)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유교적 덕목인 열행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작품 전반적으로 계모 화소가 있고 이 화소가 작품의 주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작품에 제시된 부분은 계모로 인해 남편이 죽은 사건을 김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대목이다.

4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A]에서는 서술자가 김 씨의 행적과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서술자가 “희한한 일이 세상이 또 어디 있으리오.”, “신통하고 기이함을 어디 비하리오.”라며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43.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②

김 씨가 혼인날 밤에 남편이 죽는 변을 당하고 나자, 신부집에서는 이제 김 씨가 세상에 살지 못할 것이라 하여 방 안에 가두어 굶겨 죽이려 한 것이다. 김 씨가 살인의 누명을 쓴 것도 아니고 사형에 처해진 것도 아니다. 신랑 측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① 노파의 이야기를 보면 유 씨 부인이 전실 자제를 죽이기 위하여 자객을 구하였는데 노파의 자식이 대답을 하고 신랑의 머리를 베었다고 하였다.

③ 도령으로 위장한 김 씨가 노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전곡과 피륙을 많이 주면서 노파와 서로 친숙해졌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도령을 기만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④ 노파의 이야기를 보면 장 시랑은 유 씨 부인이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늘 근심하였다고 하였다.

⑤ 노파의 아들이 신랑의 머리를 유 씨 부인에게 바쳤는데, 그 뒤로 장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는 바람에 유 씨 부인은 황급히 이를 공간에 숨겼다. 이후 장 시랑이 자리를 옮기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없애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②

㉑의 전곡과 피륙은 노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김 씨가 마련한 것이며, 김 씨는 남편의 살인 사건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파의 집에 온 것이지, 갈 곳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① ㉑은 유 씨 부인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고 벌인 일이다.

③ ㉑은 노파의 자식이 온 일을 비롯하여 자식이 왜 도망치게 되었는지를 모두 소상히 밝힌 내용으로 신랑의 죽음을 사주한 이, 살인을 한 이, 증거를 숨긴 곳 등이 모두 드러난다.

④ ㉑은 장 시랑 집의 곳간으로 이곳에 유 씨 부인이 신랑의 머리를 숨겨 놓았으므로 중요 증거물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⑤ ㉑은 남북으로 옷을 입고 여행의 차림을 했다는 것으로 김 씨가 시아버지를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해 남장을 한 것이다.

4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김 씨는 친정에 돌아와서 신랑을 따라 목숨을 끊어 여자의 행실을 다하려 하였다. 그런데 마침 시집으로부터 예부터 내려오던 물건들과 전답 문권을 다 보내와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죽지 못하였다. 따라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자진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